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을 오는 15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진행한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9월호

연남



작품에 깃든 인고의 시간 '피어오르다'

작가 51명 참여... 15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서양화·한국화·목공예·금속공예·나전칠기 등 출품

장애를 딛고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열어나가는 작가들이 있다. 장애인작가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만 창작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호남과 영남의 장애 화가들이 작품을 매개로 미술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문경양)는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을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류전 주제는 '피어오르다'.

꽃봉오리가 맺혀 벌어지려는 순간을 '피어오르다'라고 말한다. 인고의 시간 이후 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 1992년 5월 창립된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장애가 있는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협회에는 모두 150명의 장애인 작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영·호남 교류전은 광주장애인미술협회와 대구장애인미술협회, 전북하나창작지원센터 회원들이 참여했다. 작가 51명의 작품이 출품되며 장르 또한 서양화를 비롯해 한국화, 목공예, 금속공예, 나전칠기 등 다양하다.

문경양 회장은 "이번 전시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영남·호남 작가들이 작품을 매개로 예술적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마다 개성적인 세계를 일구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저마다 작가들의 심미안으로 구현한 다채로운 작품을 볼 수 있다. 소재도 다채롭다.

일상의 소소한 장면부터 계절의 변화, 꿈과 비전에, 아름다운 풍광, 고향에 대한 추억 등이 개성적인 붓질로 표현돼 있다.

송진현 작가의 '비오는 날'은 이색적이다. 작가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사실적이면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저편의 풍경은 다소 몽롱하다. 빗물의 번짐을 시작으로 묘사한 효과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익숙한 장면이지만 작품을 통해 구현한 점이 낯선 감흥으로 다가온다. 유리창과 빗물이라는 두 개의 객체를 통과해 보여지는 장면은 모티프를 잡아내는 작가의 영감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류성실 작가의 '깊어가는 가을에...'는 곧 언젠가 싶게 다가온 가을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울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시간은 은은하게 불타오르는 가을 속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가까이보다 조금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면 보다 더 깊이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다.

김수광 작가의 '배부른 악어'는 수초를 배경으로 반쯤 입을 벌린 악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노란색의 이빨과 진초의 피부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캐리커처 같은 느낌과 귀여운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단순화한 형태이지만 특징이 잘 구현된 악어는 배부른 포식자의 여유를 드러낸다. 평범해 보이는 걸보습이지만 어쩌면 우리를 저마다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상징화한 것 같다.

또한 백선희 작가의 '정겨움', 김민정 작가의 '따스함 담긴 바다', 고오주 작가의 '골고도 언덕', 윤은숙



류성실 작 '깊어가는 가을에...'

작가의 '그리움' 등도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밖에 이귀원 작가의 목공예 '콘술'을 비롯해 고정주 작가의 금속공예 '망향 쌍월봉'과 강성미 작가의 '6월의 탄생석 진주' 등도 볼 수 있다.

문경양 회장은 "저마다 개성과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들은 저마다 예술적 가치를 발한다"며 "장애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이 피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료,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다. 저녁 공연 있는 날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활력 '좋아하는 마음, 덕질 예찬' '맨발걷기' 열풍... 전남 명소는 어디?

광주일보가 발간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9월호가 나왔다. 이번호가 준비한 특집은 '좋아하는 마음, 덕질 예찬'이다. 트로트 가수, 10대 아이돌, 소설가 하루키, 피규어, 빵, 구름 등 '덕질'의 대상은 다양하다. '덕후'들은 '어덕행덕'(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이라 말한다. 팍팍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덕후'들의 '덕질 예찬'과 덕질 여행을 콘셉트로 한 '덕질살롱' 기획자 정두용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행 초대석의 주인공은 미술사학자 최열 선생이다. 근·현대미술사학 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최열이 최근 '옛 그림으로 본 조선' 연작(5권)을 마무리했다. 독자들과 저자와 함께 금강산 등 18세기 조선 '실경산수'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실경의 숲에서 서른 해를 보낸 미술사학자는 "조선은 실경의 나라요, 실경의 천국이다"고 말한다.

2024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비엔날레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은 미술애호가들이 흥미롭게 관람을 이어갈 수 있는 화제의 전시를 소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도립미술관은 만화와 도자(陶器)를 주제로 한 색깔 있는 기획전전을 마련했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춘 '이건희 컬렉션:피카소 도예'(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4관, 9월 29일까지)와 '중이의 영웅, 칸트의 서사'(전남도립미술관, 10월 20일까지)가 대표적인 전시로 비엔날레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광주비엔날레가 벤치마킹한 제60

회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도 들여다본다. '여행 창간 40주년, 남도투어'는 전남의 맨발 걷기 명소를 소개한다. '맨발 걷기'에 대한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주말이면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물론 평일 퇴근 이후라도 집 앞 가까운 곳을 찾아 맨발 걷기를 실천한다. 건강 회복을 이유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담양군, 화순군 등 각 지자체들도 휴길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맛과 맛 함께, 남도 유람'은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땅끝 해남으로 떠난다. 해남을 소개하는 수식어에는 '땅끝마을'이 따라온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해남은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해남을 찾아 일몰과 일출을 보고 국토순례의 첫발을 내딛으며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을 비롯해 땅끝 스카이워크, '달마고도' 등 해남의 볼거리-즐거거리는 무궁무진하다.

'나의 애송시'는 서언정 시인이 추천하는 조운의 '석류'를 함께 읽어보고 배국남 대중문화평론가의 '대중문화 X파일'에서는 연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이버 레커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이외에 '문화시인으로살아가기'(사)인문도시연구원원 시인 지유대, '호남 서화가 열전' 원고 이광사, '호남의 누정' 고봉의 화통과 정신 계승한 광주 칠성정, 목소리 시의 감동 전하는 광주시낭송협회 김선미 회장 인터뷰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예술의거리 솟품 영상공모전 '광주아트공향' 11월 1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를 전국에 알리고 유튜브 활성화 위한 솟품 영상공모전이 열린다.

광주미협은 2024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일환으로 예술의거리 '광주아트공향'을 진행한다. 그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솟품 공모전이 오는 11월 1일까지 열린다. 주제는 '숨은 예술의거리 찾기'.

예술의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일 이후 촬영한 예술의거리 풍경이나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30초에서 90초 미만, 1920×1080 픽셀 이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1편)에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 태블릿 PC, 최우수상(2편)에 40만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우수상(3편)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예술의거리 홍보를 위해 활용하며 수상작 발표는 11월 11일에 사업단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이밖에 '광주아트공향'은 9월 해사로 광주 동구예술작가회 작품판매전을 비롯해 예술살롱-강좌, 예술살롱-체험, 거리담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공지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소영 담당은 "이번 솟품 영상공모전은 광주예술의거리를 전국에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재기 넘치고 창의성 가득한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출품돼 광주예술의 거리를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쟁 중에 마주한 인간의 도덕적 해이

광주연극배우협회 '모두가 내 아들' 공연, 5~7일 미로극장 2관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시지회의 연극 '모두가 내 아들' 컨셉샷.

<광주연극배우협회>

전쟁 중 결합이 있는 비행기 부품을 납품하던 한 장이,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숨겨진 진실을 폭로 당하며 치명적 선택에 놓이는 연극이 펼쳐진다.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이슬-광주연극배우협회)가 합동공연 일환으로 '모두가 내 아들'을 오는 5~7일 미로센터 미로극장 2관에서 상연한다. 목,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6시 진행.

작품은 미국의 물질주의와 전후 혼란, 개인의 책임과 과도한 성공 신화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아서 밀러의 원작을 극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중서부의 한 마을, 조 켈러(표정화 분)는 가족과 함께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전쟁의 비극은 아직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조의 아들 래리 켈러는 실종됐으며 그의 아내 케이트(양정인)는 래리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후 조지(강현우)가 등장하면서 조의 감춰진 비밀

이 드러나고, 크리스는 아버지의 범죄를 알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내용.

반무섭 연출가는 연출의 변에서 "70년 전 쓰여진 극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뉴라이트 역사, 일제 침략 등 메시지를 환기한다"며 "과거의 기억을 조작해 현실마저 '왜곡'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현실'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작품은 총 3막으로 구성됐으며 현대사회의 문제점인 "나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무대에 오른다.

광주연극배우협회 이슬 회장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책임'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작품"이라며 "개인주의와 가족 문제를 겨냥하는 공연을 보며 관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네이버폼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산새소리'

수묵이 빛어낸 정취 '산새소리'

홍정순 초대전, 26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2층

홍정순 화가의 작품을 보고 싶다면 새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소담한 골목 어귀에 핀 나팔꽃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은 풍경은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잔잔함을 선사한다.

홍정순 작가의 초대전 '산새소리'가 전남대 박물관(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산새소리'. 수묵화 등 30여 점 작품은 사계절에 따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의 순간을 섬상의 아름다움으로 구현했다. 작품에는 정겨운 산새들의 노래 소리와 사분사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의 이미지가 화폭에 드리워져 있다. 자연에 대한 깨달음을 수묵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한치 위에 펼쳐

진 먹은 우연한 발묵(潑墨)과 의도된 운필(運筆)로 번지고 고아한 정취를 발한다.

추상적 형태에서 실경산수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풍경은 자연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아왔음을 보여준다. 먹빛의 향연을 풀어내는 듯한 '현색(玄色)'과 시간의 색이 만든 자연 풍경은 작가의 심상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맺힌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홍정순 작가의 이번 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자연스러운 필묵과 필법으로 풀어내는 한편 기저에 사색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자연의 오묘한 기운과 울림을 담아낸 먹빛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박물관 역사문화 플랫폼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